

**일간스포츠**

## **[단독]KFA 법인카드 비리 임직원, 전원 '근무 중'...징계 '0'**

기사입력 2018.01.22 오전 06:01 최종수정 2018.01.22 오전 09:54

<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241&aid=0002748141>

[일간스포츠 최용재·김희선·피주영]



대한축구협회(KFA)는 변하지 않았다.

축구팬들의 거센 비판과 개혁 요구를 받았지만 KFA는 그대로다. 겉으로만 쇄신하겠다고  
반성하는 척했다. 그리고 비판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지난 2016년 KFA 전·현직 임직원들의 운영 비리를 최초로 보도한 일간스포츠는 당시 징계

및 비리 의혹에 놓였던 임직원 23 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취재했다. 그 결과, 퇴사자를 제외한 전원이 KFA 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016 년 9 월 21 일, 일간스포츠는 KFA 가 비리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최초로 보도했다. 문체부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가 KFA 의 '운영 비리'를 제보받고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중연(72) 전 KFA 회장이 공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총 1 억 3000 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사용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들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보도가 나간 뒤 489 일이 지난 지금 KFA 는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을까.

법인카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직원 전원이 현재 '근무 중'이다. KFA 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

#### ◇문체부 발표 뒤 징계위원회...징계 0 명

2016 년 12 월 7 일엔 문체부가 KFA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 행위를 적발해 공식 발표했다.

조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23 명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부당 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KFA 는 이날 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KFA 는 "문체부가 발표한 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행위에 대해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자체 징계'를 내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받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FA 관계자는 "문체부의 발표가 나온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간의 위기를 넘기고자 내뱉은 '거짓말'인 셈이다.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KFA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 ◇경찰 발표 뒤 징계위원회…여전히 징계 제로

2017년 9월 14일, 이 사건은 '활화산'이 됐다.

파급력을 가진 채 폭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 전 회장을 포함한 KFA 임직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문체부 발표 때와 후폭풍의 크기가 달랐다.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비위 행위를 인정했다. 당시는 '히딩크 광풍'이 불던 시기였다. 거스 히딩크(72) 감독의 한국 대표팀 부임설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 논란 등이 터지며 KFA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임직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적발되니 KFA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축구팬들은 과거부터 이어진 KFA의 독선, 불통, 부패 그리고 현대가의 독재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분노의 목소리와 시위로 표현했다. KFA 역대 '최대 위기'였다.

경찰 발표 다음 날 KFA는 다시 한 번 사과문을 발표했다. "KFA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전 회장 등 임직원 12명 업무상 배임 형사 입건'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전 사과문과 달라진 내용은 크게 없었다.

"향후 결과가 나오면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다시 밝혔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으니 최종 결과를 기다린 뒤 자체 징계를 내리겠다는 표현이다.

'히딩크 광풍'을 일단 피해 보자는 속셈이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겠다는 것이다. 역시나 KFA는 검찰 발표 뒤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이번에도 징계를 받은 이는 등장하지 않았다.

#### ◇검찰 송치 현직 6명 형평성 논란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는 '0명'이다.

문체부가 적발한 23명 중 11명은 경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KFA는 어떤 조치도 없이 이들에게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1월에 시행한 KFA 조직개편에서 고위직에 배정된 이도 있다.

검찰로 송치된 12명에 대한 조치는 상식에서 벗어났다. 12명 중 6명은 조 전 회장을 비롯해 이번 조사가 시작됐을 때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KFA가 자체 징계로 죄를 물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나머지 6명이 문제다. 그들은 모두 근무 중이다. 이들 중 4명은 대기발령.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다. 별도의 보직을 받기 전까지 그야말로 '대기'하는 상태다. 4명은 여전히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끈 뒤, 복직시키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또 다른 2명은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대기발령이고 누구는 근무 중이다.



#### ◇'제 식구 감싸기' 위한 2 번의 징계위원회

2 번의 징계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축구인들의 평가다.

의지만 있었다면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KFA 징계 규정에는 배임·횡령·절도 등 금전 비리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이상 혹은 제명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KFA는 문체부 발표 뒤 자체 징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목살했다. 경찰 발표 뒤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KFA 징계 규정 28 조에는 '법에 계류 중인 사건이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협회의 징계 기준으로 처리 대상이 되는 사안은 별도 징계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자체 징계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관행'이라는 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KFA 관계자는 "그들이 법인카드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정확히 알 순 없다. 누구와 만나 돈을 썼는지도 사실 모른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공적인 지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는 일이다. 이를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의 개혁 의지, 뒤로는 시간 끌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정몽규(56) KFA 회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KFA가 변화와 인적 혁신을 통해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임원도 개혁하겠다. 사법 조치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회에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지로 11월 8일 KFA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홍명보(49) 전무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필두로 젊은 KFA 지도부를 완성시켰다고 자화자찬했다.

'히딩크 광풍' 속에서 역대 최고조로 불만이 높아진 축구팬들의 목소리를 누르고자 한 '보여주기식' 개혁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개혁과 쇄신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비리 직원을 보호하는 셈이 됐다.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끌기다.

"KFA가 진정 개혁과 쇄신의 의지가 있었다면 법의 판단과 상관없이 자체 징계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 줘야 했다. 국민의 분노가 이토록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한 축구인이 던진 쓴소리다.

최용재·김희선·피주영 기자